

韓國인이「日」전범리스트 작성

위싱턴 거주 李鍾淵번호사



◇李鍾淵변호사

지난해 12월 미국 법
무부가 미국 일부를 금
하는 일본인 2차대전
전범 16명의 명단을 만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
자, 많은 한국인들이 부

이것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천법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린 사람은 어느 한국인도 호사였다. 누가 의뢰한 일도 아니었지만, 미국 워싱턴에 사는 李鍾淵(이종원)은 몇년전부터 중언을 듣고 자료를 수집해 미국 법무부가 일단 작성에 나서게 만들었다.

『판단 작성할 필성의 임의로 삼아 앞으로 1만명의 리스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권
력 서류 대부분을 일한
정부가 갖고있어 혼자서
는 연부죽입니다.『그는
본업제처두
美당국, 16
수많은 한국인 희생자를
이 이 잔업을 함께 할
당사자라고 강조한다.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
던 일본인들을 의리와
생노열을 당시 직책만
정신과도 죄책(의)』(02-3

회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조지타운대 고 정신대·영양국금지서 열린 전법관련 세미나에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초청했고, 법무부 전법을 범죄사국에도 데려가 진상을 줄이하게 했다.

그런데 95년초 위안부

로전비운 국장의 밑을
들고부터 본격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홀츠
만법은 나치 전법들의
미국 입국과 추방을 위
해 79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법무성
은 나치 관계자 6만5
천명의 감시 리스트를
만들어 나치 전법 1백
여편을 추방했다.

이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개 이기에 일본은 더욱 나 처하다. 『홀시 내가 그 명단에 포함돼 있다면,』 만행 연루자들은 그러한 작정을 해볼 것이고, 심

“戰犯者 역사심판 반드시 받아야,,

제로 포함돼 있다면 미국 공화에서 입국할거 부당한 수모를 겪어야 한다. 이 명단 때문에 일본은 2차대전이 끝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전범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이른바 공화 가치에 따라 여사의 심판대에 선 셈이다.

李씨는 고문대와 미국 예일대 법대를 나온 뒤 주한 미군사령부 고문변호사, 법원성 고등검찰관을 지냈다. 「전범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 이론을 삼키지 않더라도, 이들을 지냈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는 없었습다.』

△朴宰永기자▽